

빌레몬서 Phile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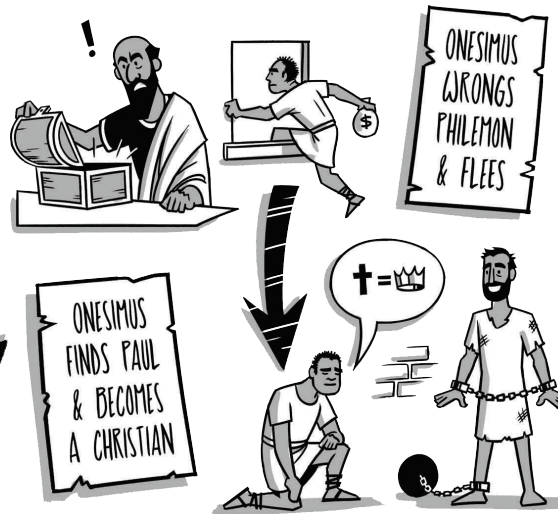
PAUL'S LETTER TO PHILEMON

서론: 빌레몬서 배경과 구성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바울은 여러 번 투옥되었고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짧은 서신인데, 길이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바울이 쓴 것 중에 가장 폭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배경이 보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부유한 로마시민이며,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던 중에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예수 공동체를 개척했을 때,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다른 가부장들처럼 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오네시모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마 도둑질이었거나 어쩌면 속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네시모는 달아났고, 결국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이 사랑하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어렵고 미묘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그를 메시아

안에서 형제로 품고,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1.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핵심 : 코이노니아

바울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며,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가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vv1-7 OPENING PRAYER

PHILEMON, I THANK GOD FOR YOUR LOVE & FAITHFULNESS. (vv.4-5)

"I PRAY THAT THE **PARTNERSHIP** THAT SPRINGS FROM YOUR FAITH MAY EFFECTIVELY LEAD YOU TO RECOGNIZE ALL THE GOOD THINGS AT WORK IN US, LEADING US INTO THE MESSIAH." (v.6)

GREEK: KOINONIA = SHARING, MUTUAL PARTICIPATION

ALL OF JESUS' FOLLOWERS ARE EQUAL PARTNERS WHO SHARE IN THE GIFT OF GOD'S GRACE & LOVE.

FOR PAUL, KOINONIA IS NOT JUST AN IDEA...

MMM... KOINONIA.

IT'S SOMETHING YOU DO!

신실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 구절과 같이 그의 부탁을 위해 사전 포석을 깔아놓습니다. "그대의 믿음에서 우러난 동역(교제)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선한 것들을 깨달아 메시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에 대한 저자의 번역].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나눔' 또는 '동참/동역'을 뜻합니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함께 받고 나누어 동역자 partner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교제/동역의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며, 바울은 이제 바로 그것을 부탁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오네시모 문제를 꺼냅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 오네시모가 그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충성하도록 바울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신실하게 바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를 곁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 갈등을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v10 ONESIMUS HAS BECOME PAUL'S 'CHILD'

† = ̄

THIS CONFLICT MUST BE RESOLVED.

v15-16 **THE BOLD REQU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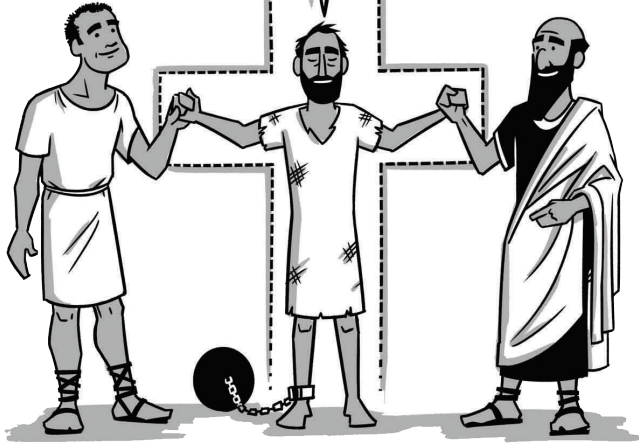
"RECEIVE ONESIMUS BACK, NO LONGER AS A SLAVE, BUT AS A BELOVED BROTHER IN THE LORD."

OLD
ST:
CK, NO
UT AS A
HE LORD."



WHY SHOULD PHILEMON DO THIS?

IF YOU ARE TRULY A **PARTNER** (GRK: KOINONIA) WITH ME, THEN WELCOME ONESIMUS AS IF HE WERE ME. IF HE'S WRONGED YOU OR OWES YOU ANYTHING, CHARGE IT TO ME--I WILL REPAY IT. (vv17-19)



2. 바울의 요청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아주 무리한 요청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빌레몬은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처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지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노예였던 그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상대이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주는, 듣도보도 못한 일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일인데, 빌레몬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기가막힌 수를 둡니다. 그는 편지 서두의 기도문에서 말했던 핵심 단어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빌레몬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란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나처럼 맞아주시오. 그리고 만약 그가 잘못했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청구하시오. 내가 다 갚겠소" (1:18, 저자의 번역).

이 간청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첫째로 이것은 화목(/화해)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말한 대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후 5:19). 바울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기가 감당하여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1 RECONCILIATION: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IN THE MESSIAH** **TO HIMSELF** NOT COUNTING PEOPLE'S SINS AGAINST THEM."

(2 CORINTHIANS 5:19)



하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법적 거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그들 모두 죄사함 받을 필요를 같이 나눕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온 교회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새가족 안에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도,

할례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외국인과 야만인의 구별도, 노예와 자유인의 구별도 없습니다. 메사야께서 모든 것 되시며,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보다 더 잘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게스트룸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출옥하자마자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여러 면에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동을 통해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십자가의 뜻을 자기 몸으로 실천해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화목하게 하는 장소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또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가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가족이란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회, 혹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사람(신인류)"입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인종이나 성이나 부의 정도 등에 따라 매겨지지 않습니다. 메시아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저 동등한 동역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THIS IS A TRICKY ONE...

WRITTEN FROM PRISON
PAUL'S SHORTEST LETTER
... & MOST **EXPLOSIVE!**

THE MISSION:
GET PHILEMON TO FORGIVE ONESIMUS
AND
EMBRACE HIM AS A BROTHER

PAUL'S LETTER TO PHILEMON

- THE ONLY LETTER WHERE PAUL DOESN'T TALK ABOUT JESUS' DEATH & RESURRECTION... BECAUSE HE'S ACTING IT OUT.

- THE IMPLICATIONS OF THE GOOD NEWS ARE PERSONAL, BUT NEVER PRIVATE: JESUS' FAMILY IS A NEW HUMANITY OF EQUAL PARTNERS WHO SHAKE TOGETHER IN GOD'S HEALING MERCY.

I KNOW THAT YOU'LL DO MORE THAN I ASK. (v.21)
EPAPHRAS & THE CREW SAY HI!

v.21-25 FINAL GREETING

THE BACKSTORY:

PHILEMON BECOMES A CHRISTIAN
SEE v.17

EPAPHRAS & PHILEMON START A CHURCH IN COLOSSAE
SEE vv. 1-2; COLOSSIANS 1:7

ONESIMUS WRONGS PHILEMON & FLEES

ONESIMUS FINDS PAUL & BECOMES A CHRISTIAN

vv1-7 OPENING PRAYER

PHILEMON, I THANK GOD FOR YOUR LOVE & FAITHFULNESS. (v.4-5)

"I PRAY THAT THE PARTNERSHIP THAT SPRINGS FROM YOUR FAITH MAY EFFECTIVELY LEAD YOU TO RECOGNIZE ALL THE GOOD THINGS AT WORK IN US, LEADING US INTO THE MESSIAH." (v.6)

GREEK: KOINONIA = SHARING, MUTUAL PARTICIPATION

ALL OF JESUS' FOLLOWERS ARE EQUAL PARTNERS WHO SHARE IN THE GIFT OF GOD'S GRACE & LOVE.

FOR PAUL, KOINONIA IS NOT JUST AN IDEA... IT'S SOMETHING YOU DO!

vv8-20 PAUL'S REQUEST

ONESIMUS HAS BECOME PAUL'S 'CHILD'

THIS CONFLICT MUST BE RESOLVED.

THE BOLD REQUEST:
vv15-16
"RECEIVE ONESIMUS BACK, NO LONGER AS A SLAVE, BUT AS A BELOVED BROTHER IN THE LORD."

UNHEARD OF!!!

WHY SHOULD PHILEMON DO THIS?

IF YOU ARE TRULY A PARTNER (GK: KOINONIA) WITH ME, THEN WELCOME ONESIMUS AS IF HE WERE ME. IF HE'S WRONGED YOU OR OWES YOU ANYTHING, CHARGE IT TO ME--I WILL REPAY IT. (v.17-19)

1 RECONCILIATION: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IN THE MESSIAH TO HIMSELF" NOT COUNTING PEOPLE'S SINS AGAINST THEM. (2 CORINTHIANS 5:19)

2 KOINONIA:

THEY ARE EQUAL BEFORE GOD, SHARING IN THE SAME NEED FOR FORGIVENESS.

IN GOD'S NEW FAMILY, PEOPLE ARE NOT GREEK OR JEWISH, CIRCUMCISED OR UNCIRCUMCISED, **SLAVE OR FREE,** BUT THE MESSIAH IS ALL & IS IN ALL. (COLOSSIANS 3:11)

~~MASTER & SLAVE~~

BROTHERS IN THE MESSIAH